

## ‘황금콤비’ 임종훈·신유빈 우승

탁구종합선수권 혼복 결승 조승민·주천희에 3-1 승리  
오준성 단식 정상… 우형규·최지욱, 주천희·김성진 우승

탁구 세계랭킹 2위 콤비인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처음 출전한 제79회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26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조승민·주천희(이상 삼성생명) 조를 게임 점수 3-1(11-2, 10-12, 11-9, 11-9)로 물리쳤다.

이로써 임종훈·신유빈 조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선수권에서 첫 우승을 기쁨을 누렸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첫 게임 들어 신유빈의 안정적인 리시브에 이은 임종훈의 날카로운 원손 드라이브 공세를 앞세워 4-1 리드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4-2에서 조승민·주천희 조를 2점에 꽁꽁 뒤쳐놓고 7연속 득점하는 놀라운 공격으로 1게임을 따냈다.

2게임 들어 반격에 나선 조승민·주천희 조는 9-6으로 앞서갔고, 9-9 동점에 이어 드스를 허용하고도 조승민의 드라이브가 폭발하며 게임을 가져갔다.

하지만 임종훈·신유빈 조는 더 이상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3게임에 9-6으로 앞서가다가 9-9 동점을 허용했으나 임종훈의 재치 있는 공격으로 내리 두 점을 가져와 게임 점수 2-1로 앞섰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4게임 들어 중반까지 5-7로 끌려갔지만,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든 뒤 통렬리끌에 임종훈의 원손 드라이브로 전세를 뒤집었다.

승기를 잡은 임종훈·신유빈 조는 10-9에서 임종훈의 2구 공격으로 마지막 점수를 뽑아 첫 우승을 완

성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선 오준성(한국거래소)이 풀게임 대결을 펼친 박규현(미래에셋증권)에 3-2(6-11, 11-7, 15-13, 5-11, 12-10) 역전 승을 거두고 제77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또 남녀 복식 우승컵은 우형규·최지욱(이상 한국마사회) 조와 주천희·김성진(이상 삼성생명) 조가 각각 차지했다.

우형규·최지욱 조는 남자복식 결승에서 안재현·임종훈(이상 한국거래소) 조에 3-2로 이겼고, 주천희·김성진 조는 이다온·이채연(이상 한국마사회) 조에 3-2 역전승을 냄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26일 탁구 종합선수권 혼합복식 우승을 합작한 임종훈(왼쪽)과 신유빈. 연합뉴스

## 프로야구 팬 82% “바뀐 규정 긍정적”

KBO 팬 성향 설문조사… ABS·피치클록 등 질문

프로야구 팬 10명 중 8명은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피치클록,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등 바뀐 제도가 경기 관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온라인 팬 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KBO리그 생중계 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1회 이상 시청한 만 15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중 94.6%는 ABS 도입을 알고 있었다. 피치클록은 89.8%, 연

특히 여성(53.3%), 20대(63.3%), 관람 및 시청 빈도가 높은 고관여 시청층(54.1%)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증가율이 높았다.

관심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가 재밌다고 느껴져서’가 20%로 가장 높았고, ‘특정 구단의 인기·성적’(16%),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져서’(13.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팬은 선수 개인 순위와 기록 관련 정보를, 여성 팬은 구단 소식과 상품, 이벤트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매체와 관련, 생중계는 여전히 TV(79.7%) 시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하이라이트 시청은 모바일(62%) 이용 비율이 TV(60.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장전 이닝 축소와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은 88.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 81.7%는 새 제도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2025시즌 평균 경기 시간(3시간

2분)에는 69.8%가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2025 KBO리그가 2024년보다 성장했다고 응답했고, 10.6%만이 퇴보했다고 반응했다.

전체 응답자의 49.7%는 전년보다 KBO리그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전국 축구 꿈나무 3000명, 제주 모인다

제27회 탐라기 전국대회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주 9개·전국 55개 팀

전국 중학생 축구 꿈나무 3000여 명이 모이는 ‘제27회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2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탐라기(고학년)와 U-14유스컵(저학년), 두 부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도내 5개 축구장에서 펼쳐진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탐라기 대회에는 전국 각지 55개 팀, 3000여 명이 참가한다. 탐라기 부문에는 10개 시·도 32개 팀이, U-14유스컵 부문에는 9개 시·도 23개 팀이 출전을 예고했다. 대회는 제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제주자치도 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경기는 예선을 시작으로 본선으로



지난해 열린 제26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제주시 제공

출전하며 서귀포FC U-15와 서귀포중, 위너FC U-15, 제주중앙중, 탐라FC U-15는 유스컵 부문에 도전장을 냈다.

제주시는 올해 대회 개최로 약 7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대회 1일 체류 기준 금액을 19만1000원으로

제주시에 모두 9개 팀이 열띤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탐라기 7개 팀, U-14유스컵 2개 팀이다. 오현종과 제주제일중은 두 부문 모두



마이클 캐릭(오른쪽) 맨유 감독이 팀 선수 아마 딜로와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39분 오른쪽 코너킥에 이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미켈 메리노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터트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42분 맨유가 결승골을 끊었고, 주인공은 마테우스 쿠냐였다. 중원에서 볼을 이어받은 쿠냐는 특별 치며 전진하더니 페널티아크 정면 앞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맨유에 승점 3을 선물했다.

연합뉴스

## 맨유, 맨시티·아스널 잇달아 격파

26일 EPL 선두 아스널에 3-2 승리… 리그 4위 도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사령탑 교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말 그대로 ‘캐릭 매직’이다.

팀의 ‘레전드’ 수비형 미드필더 마이클 캐릭(44)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2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제압하더니 이번엔 선두 아스널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따내며 패조의 2연승을 내달렸다.

맨유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메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5-2026 EPL 23라운드 원정에서 3-2로 이겨 정규리그에서 최근 2연승과 더불어 6경기 연속 무패(3승 3무)를 내달렸다.

지난 18일 맨시티(승점 46)를 2-0으로 물리치고 5위로 올라섰던 맨유(승점 38)는 이날 아스널(승점 50)도 돌려세워 웨슬리(승점 37)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한 계단을 도약했다.

맨유는 후반 5분 파트리크 도르구가 페널티아크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스널 골대 원쪽 상단에 볼을 꽂으며 2-1로 경기를 끝냈다.

모링 감독의 뒤를 이어 이번 시즌 임시로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다.

캐릭 감독은 아모링 감독이 고수했던 스리백 전술 대신 포백 전술을 가동했다.

이날 맨유는 전반 29분 만에 자책골로 먼저 실점하며 끌려갔다.

아스널의 마르틴 외데고르가 골 지역 오른쪽 앞에서 시도한 원발 슈팅이 맨유의 중앙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이 됐다.

반격에 나선 맨유는 전반 37분 브라이언 음비모가 아스널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멘디의 백

페스를 가로챈 뒤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트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맨유는 후반 5분 파트리크 도르구가 페널티아크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스널 골대 원쪽 상단에 볼을 꽂으며 2-1로 경기를 끝냈다.

캐릭 감독은 지난 14일 후행을 아끼지 않고 전술을 바꾸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맨유는 전반 29분 만에 자책골로 먼저 실점하며 끌려갔다.

아스널의 마르틴 외데고르가 골 지역 오른쪽 앞에서 시도한 원발 슈팅이 맨유의 중앙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이 됐다.

반격에 나선 맨유는 전반 37분 브라이언 음비모가 아스널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멘디의 백

페스를 가로챈 뒤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트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맨유는 후반 5분 파트리크 도르구가 페널티아크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스널 골대 원쪽 상단에 볼을 꽂으며 2-1로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 오늘의 운세 27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병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익숙이 강하고 갈 곳도 많고 활동도 원만한, 48년 출거음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혀전함이 몰려온다. 60년 책임분야의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일시 생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2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 너무 기대하지 말 것. 84년 신상품과 관련된 업종은 분주해지고 계약이 증가한다.

37년 동문서답할 일이 생기고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49년 문서운이 활동하고 계약이 성사 되기도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3년 마음이 들떠 안정이 안되면 여행도 필요하다. 85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38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주진해도 무방. 명예가 따를까. 50년 능장이나 과수원업은 일손이 부족하다. 62년 담당함이 있으면 자녀와 과수원업을 상의하면 일이 훨씬. 74년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다. 86년 짧은 척 하면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시련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39년 찬 음식을 드시면 탈이 날수 있으니 음식 주의. 51년 협조자나 동업자나 생기면 상의해 방법을 찾고 협력하면 좋다. 63년 불하나 능쟁이를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하라. 75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정전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7년 하고자 하는 일을 주진하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진다.

40년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일에 전진이 미진하다. 52년 명예 또는 직업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64년 예매한 경쟁이 구성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76년 내집 마련 또는 이사는 서남간이 유리하다. 88년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웃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하면 풀린다.

41년 뜻밖에 용돈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53년 관재나 구설이 오니 외부 출타는 자체하는 것이 비범직하다. 65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 충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77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 할 것. 89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좋다. 남은 원망하지 마라.



42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부갈등 조심. 54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거나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66년 주변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해롭다. 78년 친목을 지속하라. 79년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구두에 신경을, 90년 상대를 감싸 안아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요.

43년 수산종사업 건이물류 회복이 보이니 가게를 정결하게 할 것. 55년 농수산업 종사업은 몸이 분주하다. 이익이 따르고 일손이 필요하다. 67년 접안어를 우수한 품질을 갖춰내고 내일을 준비하면 결과가 크다. 91년 문제를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긍정면면.

44년 변동하는 것은 신증을 기하는 게 좋다. 5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68년 묵묵히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80년 대인관계를 폭넓게 갖고 정보도 주변에서 충돌하라. 92년 사소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있는 날이다.

45년 사업이 전망되고 직장인은 명예 또는